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하는 소리 있어(찬44/새19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동건 집사 2부/홍대원 장로 3부/조 룡 집사 4부/이현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비아돌로로사(작곡 David T. Clydesdal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25:1-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4:1-1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기다림과 그때의 관계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39)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의 시간에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축도 Benediction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해독제

Antidote



박경철 목사 / Rev. Kyung Chul Park

봄이 오면서 여기저기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고자 산책이나 등산을 하다가 자칫 뱀에 물린다면 간단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물린 뱀의 종류에 해당하는 해독제(antidote)를 처방받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각종 이단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상영되면서 나라 전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다면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마다 뱀에 물린 것처럼, 그 영상을 본 사람과 교회에 많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단은 매우 악하기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취가 납니다. 이단의 모든 면면을 이렇게 자세히 모두 알려주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사람을 미혹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뱀의 독에 물린 분들을 위해 해독제를 하나 처방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Jesus Revolution(예수 혁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60-70년대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와, 술과 마약에 빠져 살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였던 그레고리 목사가 자신이 10대였던 그 당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를 만나 혼란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본 미국은 제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핵전쟁의 위협과 결코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은 분열된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시대를 '절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뉴포트 비치의 교양 있고 지식 있는 목회자의 모습에서 히피들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가갔습니다. 당시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히피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역이 Maranatha! Music이 되었고 이는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찬양과 예배의 부흥을 일으켰으며, 갈보리 채플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납니다.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던 갈보리 채플을 가리키며 히피들이 “Our country is a dark and divided place. But in that tent, there’s hope and unity and miracles that I can’t even explain.(우리나라는 어둡고 분열되어 있지만, 저 텐트에는 희망과 하나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 세상은 이단을 고발하는 화살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상처 난 부위를 해독하시고 His Story를 써 내려가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 또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영화로 해독제 한번 맞으시길 처방드립니다.

When spring comes, flowers bloom on mountains, fields, and everywhere. As you take a hike to enjoy the beauty of this season, let’s assume you were accidentally bitten by a snake. After a quick first aid, you would be rushed to an emergency hospital. There, you will receive a shot of antivenom(antidote) for the type of snake bite. With release of a documentary that identifies various cults in Korea, it is raising many issues all over the country. When you hear people talk about this, it is as if everyone who watched it has been bitten by a venomous snake, leaving many scars. Cults are evil. It’s obvious that nothing but foul smell would come out of them. As all aspects of inner happenings are revealed about these cults, calling themselves God and Jesus and using the name of our God and Jesus to entice people, no wonder churches and Christians are left with scars from them.

If you had been bitten by this venomous snake, I would like to prescribe an antidote. The antidote is a movie that is just released. It is called Jesus Revolution. This is a movie based on a true story that happened in southern California during 1960-1970. This was the time when young Americans came out to streets shouting “God is dead”. They lived recklessly, drinking and taking drugs. Among them was a young man, in his teens, named Greg Laurie. He meets Pastor Chuck Smith of Calvary Chapel. Together, they evangelize to these young people living in confusion. This is a movie that vividly depicts transformation of these young people. Life of America in this movie was very dark and hard for me to imagine. There seemed to be no hope for these young people. The society was in danger of nuclear war, and problem of segregation with unreachable solution. Pastor Chuck Smith did not see “despair” of the time. Instead, he looked to “heart” of God. He humbly lowered himself and began preaching to the hippies in Newport Beach, not as an educated and knowledgeable pastor. The ministry that was created to sing praises along with guitar-playing hippies on the beach became Maranatha Music ministry. This ministry brought revival of praise and worship to young people all over the country. Calvary Chapel grew to become the biggest church in the U.S.

I remember a line from the movie. Pointing to the Calvary Chapel with hippies worshiping in a tent, it says, “Our country is a dark and divided place. But in that tent, there’s hope and unity and miracles that I can’t even explain.” World may want to hurt the churches and Christians by reporting about cults, but I believe God works even now to provide antidote through churches. He continues to write His Story. I prescribe this movie as antidote to our family and believers this week.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경철 목사

기다림과 그때의 관계 마태복음 25:1-13

1.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을 담아 준비한 부분과 지금 와 생각해 보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요즘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족의 기다림 외의 스스로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3. 기다림과 그때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과 같이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요즘 내가 겪는 기다림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하는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4. 그때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눅 4:1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지 못할 때의 두려움과 예배와 말씀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경외감의 두려움 중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 적용찬양: 주님의 시간에

금요일 저녁

예배의 꽃이 피어나는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면 베델 캠퍼스에는 예배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주일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교회의 각 채플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을 베델뉴스가 찾아가 봅니다.

오후 3시부터 금다식(금요일 다음 세대 식사) 팀장님을 비롯한 사역 권사님, 안수 집사님 등 봉사자 팀원들



이 마켓에서 사 온 식재료를 나르며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살과 BYM 학생 100여명 남짓을 위해 준비하던 식사가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어와나 학생들과 BYM 중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더해져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로 늘어난 일거리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웃으시며 섬기시는 금다식 팀원들과 B&B를 섬기시는 팀들과 더불어 이렇게 매주 금요일 예배의 첫 문이 열립니다. 6시부터는 저녁 식사 배식을 시작합니다. 이날의 메뉴는 제육볶음인데 Sports & Disciple 제자반 훈련 중인 중등부 학생들 50명 정도가 제일 먼저 줄을 서서 감사

의 인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받아 갑니다. 이어서 어와나 선생님들, CIM & BYM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예살 청년들이 몰려와 하나둘씩 그러한 집밥 같은 저녁을 감사한 맘으로 받아 카페에 앉아서 먹습니다.

본격적으로 7시부터는 각 부서가 교회의 각 장소로 흩어져 예배가 시작됩니다. 카페 옆 조이 채플에서는 한 달 전부터 Beyond the Blues (샤벨 가정 회복)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유년부실에서는 중등부 학생들이 제자훈련 전에 몸을 신나게 움직이며 게임을 하고 있으며, 맞은편 체육관에서는 2주 전 시작된 어와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K-5학년 아이들이 100명 넘게 모여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2층 임마누엘 채플에서는 예살 청년들이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살

롬 채플에서는 CIM 중등부 학생들의 금요일 예배가 있고, 비전 채플에서는 고등부 Praise team이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 중인 베델 콰이어의 모습이 보이는 베델의 분당, 금요일 저녁의 교회는 베델의 성도들과 많은 학생이 모여 북적이는 활기찬 옛 모습으로 돌아온 거 같아 훈훈한 맘으로 교회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시기를 보내고,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한 주님의 몸 된 베델 성전이 부흥의 날개를 활짝 펼칠 기도합니다.

베델뉴스팀



베델사역

온 세대가 함께하는 QTm



이별 눈높이에 맞춰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각각의 책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 영어권, 한어권이 언어와 세대를 넘어 함께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글 교재는 두 달에 한 번, 영어교재는 매월 출간되는 점

QTm은 베델교회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더 나아가 모든 크리스천 가정의 전 세대가 함께하는 QT 사역으로 새싹(유아-유치부), 어린이(1-6학년), 청소년(중, 고등부), 장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나

이 다릅니다.

QTm 사역은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월 한글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우리 번역팀에서 매달 영어판 QTin을 번역하면 이것이 한국에서 인쇄되어 다시 미국으로 보내져서 베델교회와 미주 각처로 보급이 됩니다. 둘째는 QTin교재를 저희 베델교회와 QTin을 사용하는 미주 여러 교회에 보급하는 일입니다. 정 목사님과 지 집사님을 주축으로 매주 주일마다 여러 봉사자분이 베델교회 카페에서 교재 판매를 도와주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매월 타지역으로 교재를 발송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할 정도로 타지역으로 보내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더 많은 미주 한인 교회들이 QTin 책을 사용

하시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QTm 사역을 하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일의 삶에 QT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만들어가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점점 더 악하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느껴지지만, 작은 불씨같이 온 세대가 함께하는 QT의 불꽃이 베델교회와 주변으로 그리고 미주 전 지역으로 번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QTin으로 인해 삶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재훈 집사



믿음의 울타리



패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계획들은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또한 믿었던 일들은 보기 좋게 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 될 줄 알았던 신앙의 신고식을 고달프게도 치러내야 했던 지난 시간 "자꾸 이러시면

잡은 손 놓을 거예요!"라고 유치한 기도로 협박도 해보고, "말 잘 들을게요!"라고 회유도 해봤지만, 하나님은 이런 얽박한 기도에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게 보내야 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셀이라는 커다란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셀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어 주는 존재가 되었고 셀 안에서 진심을 비추고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게 힘들다고 투덜덜 때쯤 주님은 보이는 셀식구의 손길을 통해 역사 하셨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 저에게 하늘의 감동이 담긴 음식 봉투를 놓고 가시고, 슬픔에 빠져있을 때 반짝이는 미소로 드라이브를 권

해 주시며, 한숨이 쌓일 때쯤엔 평안을 담은 마법의 커피를 나누게 하십니다. 날씨가 좋아 산책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 쏟아낸 마음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숨 쉴 수 있게 해주심에, 누구랄 것도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시고 셀식구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여 주실 새로운 일들, 함께 걸어갈 시간, 단단히 키워 주실 믿음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내일이 기대됩니다. 셀식구라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오로지 주님 이름만 높이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승현 성도

베델선교

내가 만난 그녀

내가 만난 그녀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주님께 헌신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나 빠져들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교회의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밝은 모습에서 과거의 무서우리만큼 아픈 흔적을 상상해 보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3천여 명의 탈북자 중 한 사람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끼니를 잇기 힘든 가족들을 위해 중국으로 돈 벌러 나왔던 인신매매로 시골의 가난한 술주정뱅이에게 팔려 매 맞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시골 장애인에게 팔려 그나마 조금은 나은 형편에 살게 된 듯했지만, 손자만 낳아주면 된다는 시어머니의 강요 속에, 손자를 낳자 돈 몇 푼 받고 쫓겨나게 되었고, 여러 힘든 과정 끝에 제3국을 통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북에 있는 오빠와 여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설 틈 없이 하루 17시간씩 일했고, 그렇게 데려온 여동생이 탈북자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 언니를 위해 8년간 기도한 끝에 이 언니가 믿게 되어 온 가정이 헌신

자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탈북자의 75%에 달하는 탈북 여성들이 이와 유사한 가슴 아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인생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을 보았기에 탈북 여성들을 위한 영성 모임인 힐링 킹덤과 조이풀 킹덤을 시작하여 11번의 사역을 코로나 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나 한국의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도 우리의 어떤 형제자매는 비참한 암흑의 나라에 갇혀 굶주리며 매 맞으며 눈물 흘리며 살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매와 같이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씻겨짐을 입었을 때 그 빛나는 모습을 모든 탈북자와 아직도 제3국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들도 당연히 똑같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찍이 이 꿈을 가지고 저들을 안아주고 눈물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던 손 목사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뜻을 이어받은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끌어 나갈 것을 이번 그분의 3주기에 다시 확인하며 일어섭니다.

손승욱 사모



교육부 소망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제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소망부 토요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은 도움만 받으면 얼마든지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전문적인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운동선수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망부 친구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상상만 하고 있던 모습으로 그들을 잠시나마 변화되도록 만들고, 조금이나마 건강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락 집사(소망부 토요학교 축구코치)

우연히 소망부에 참여하게 되어 벌써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생전 처음, 마음 따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섬김에, 제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보다 제가 오히려 따뜻한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부 모든 학생들의 착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토요일 소망부를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팍 찬 듯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드립니다.

문진주 집사(교사)

부족한 저에게 다시 장애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티 없이 맑은 소망부 친구들의 예배와 찬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소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토요학교가 소망부 친구들에게는 기쁨과 활력

이 되기를, 부모님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휴식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한인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사랑의 축제와 7월 19일부터

진행될 VBS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종민 장로



QTin 간증

온전한 하나님의 몫

홍희진 집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기만 합니다. 최대한 나를 잘 포장하여 최고의 상품으로 보이는 것, 그래야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9학년 딸아이를 둔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아이의 최고의 컨설턴트이시다'를 굳게 믿으며 자책적으로 여러 대학 지원서를 찾아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서류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다시 큐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근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말씀과 현실의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대학 지원서를 쓸 때 더욱 '지킬 수 없는 말씀 같은데요?' 예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위에 다 높은 산들이 있을 때 서로 치열하게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사이에서 나의 산의 높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높이에 집착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에 순종해 '저희 부부의 마음과 우리 아이의 마음을 낮추자. 나는 원래 능력이 없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니 남들보다 더 성실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낮추며 주님과 걸어갈 때 나를 높이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임을 고백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어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시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금요일 예배 시에는 베델 콰이어에서 정성껏 준비한 특별공연 '주 하나님 크시도다'가 들려집니다. 이 특별공연은 예수님의 생을 간략하게 표현한 곡으로 처음에는 세상을 뒤바꿀 메시아로 생각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따르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실망하고 배반하여 마지막에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정성껏 무대 의상을 준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마련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자리에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이 성금요일 예배에 나아와 주님의 발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리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일시/장소: 4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월)	4/2:	①부-이종선	②부-이광수	③부-홍락기	④부-승미진
	4/9:	①부-김 샘	②부-박종민	③부-김근수	④부-신영록
	4/16:	①부-권조원	②부-최동주	③부-이양수	④부-최재환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월)	4/1: 강정엽	4/8: 강재형	4/15: 강영범	4/22: 강영재
---------------------	----------	----------	-----------	-----------

강단꽃(3,4월) | 3/26: 선상균, 장효준 4/2: 김숙영, 김영수, 양석주 4/9: 류다정, 양석주 4/16: 노성애, 육상운, 황지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장수잔 다음주 | 의사-마 준(한의학),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성금요일 예배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2023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그리스도와 함께(With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Q/Tin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4월 3일(월)~7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7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공연이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English Translations available)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모입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김홍식 목사의 말씀 시리즈 '봄에 피는 꽃 TULIP'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는 현장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라며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오늘부터 가족(Let's Be Family)' 설명회** '오늘부터 가족'은 야나(yana) 비영리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여름 VBS 기간 동안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에서 지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설명회 일시/장소: 3월 26일(주일) 오후 1시, 할렐루야 채플
 섬김 기간: 6월 17일(토)~6월 25일(주일)
 섬김 방법: 홈스테이, 재능, 물질 기부 등 다양한 방법
 문의: 본당 앞 부스, 김동건 집사 (714)389-1645

◆ **라구나우즈 연합 셀모임** 라구나 우즈 지역의 신앙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3월 연합 셀모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성도님은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3월 28일(화) 오후 12시-2시 30분, Laguna woods Clubhouse 7

◆ **셀목자 정기모임** 베델의 모든 셀목자께서는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서로 하나 되어 감당해 나가는 동역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4월 1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오전 7시 30분, 본당

◆ **교회학교 VBS 조기 등록** 2023 VBS가 'Keepers of the Kingdom'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베델교인들을 위한 조기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상: 영아, 유아, Kindergarten, 1-5학년
 조기 등록 기간/등록처: 3월 26일(주일)~4월 1일(주일), 베델교회 홈페이지(bkc.org)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 **교회학교 온타임 캠페인** 3월 한 달 동안 교회학교에서 온타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주 동안 매주 예배에 정시(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도착한 학생들은 마지막 주에 시상이 있습니다.

◆ **교회학교 고난주간 특별집회** 교회학교에서 고난주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시간: 4월 3일(월)~4월 7일(금), 오후 7시 30분~9시
 예배 장소: [K-1, 유년부, 초등부] 체육관, [유아부] 할렐루야 채플, [소망부] 소망부실
 예배 후 특별활동 장소: [K-1] 임마누엘 채플, [유년부] 유년부실, [초등부] 체육관

◆ **예삼 특별 찬양집회** 미국의 The Bridge ministry와 한국의 C5 Ministry가 연합한 J+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3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BGC 채플

◆ **단기선교팀 모집**
 ① 니카라과: 안경, 사진, 의료, 전도, 아이들 사역 등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5일(월)~10일(토), 정광묵 장로 (949)232-3963
 ② 우간다: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12일(월)~21일(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해 부르짖는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자(2세)와 봉사자(1세) 모집을 약의 카페 앞 부스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0일(월)~13일(목),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Lost & Found 운영 안내** 교회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후 본당 앞 Lost & Found 부스로 오셔서 분실물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분실물 확인 방법: 교회 홈페이지 Lost & Found 게시판
 문의: 강덕규 집사 (949)294-9680



◆ **얼바인 지역 도로 통제 안내** 마라톤이 오늘(26일) 얼바인 지역에 있는 관제로 Irvine Valley College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405 FWY에서 오시는 분들은 Jeffrey/University를 이용하실 수 없사오니 Culver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서 선물 배포** 유한성 목사(유영옥 사모)의 저서 '귀 뚫린 종'을 선물로 배포합니다. 코트야드 부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예삼 이근제 형제와 이제영 자매의 결혼식이 4월 1일(토)에 한국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최병호 집사님(최찬옥 권사의 남편)께서 3월 22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자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만주 집사, 최 신 권사, 허성욱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The Relationship between Waiting and the Day

Matthew 25:1–13

1. Share the preparations for your marriage that you put the most effort into and the ones that you realize you didn't prepare enough for as you look back on them now.
2. What are you currently waiting for? Share your hope and desires that you are waiting for, both related to your family and other aspects of your life.
3. The relationship between Waiting and the Day, just like a bride and groom is not as important as waiting on the Lord. What is your longing that you need to wait patiently before God?
4. It is said the preparation of oil for the Day is to hear the word of God and act upon it (Luke 4:18). Sometimes we fear we are falling short of the standard of worldly happiness, other times, we fear we don't worship God or meditate on His word. Which one should we hold onto before God?

Apply to Life

